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성도들이 얻는 나라 성경: 다니엘 7장 21-28절

Tag: 성도,나라,체제,대한민국,구약,다니엘

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단7:21-28)

성경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나,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시간동안 그리하신다. 오늘 말씀에는 대국을 일으키셔서 이 대국이 한정된 시간동안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였다. 한마디로 패권국이 생긴다는 뜻이다.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역사적으로 패권국은 과거 진시황제 때부터 아시아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몽골의 징기스칸이 있었다. 현재의 중국은 패권국은 아니다.

성경시대에는 바벨론(페르시아)이 패권국이었던가, (물론 창세기 시대에는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이 그랬고,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패권국이었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 그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이 패권국이었으며, (지금은 아님. 바티칸 도시만 다스림) 중세에는 이슬람의 오스만튀르크가 패권국이었으며, 지금도 이슬람이 이 지역에 퍼져 있다. 현재는 2차세계대전 이후 급 부상한 미국이 패권국이고, 중국의 시진핑이 패권국에 도전하고 있다.

물론 마지막에 세워질 진정한 패권국은 영원한 나라이다. 이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나라이다.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나 그 전까지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 나라는 물론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성경에는 다윗왕조가 그랬고, 중세 이후에는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한국 등.-개신교국가)다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때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오늘은 원한을 풀어 주셨다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원한을 풀어 주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고

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북한의 지하 가정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남한의 한국교회는 근 70여년간을 통일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 올해로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이 나라의 분쟁이 그쳐야 할 날이 이르렀지 않나? 우리는 이때 더욱 기도해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어, 기독교정신이 강한 통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것을 기도하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열풍이 강력하고, 주사파를 중심으로 정권찬탈을 노리는 공산주의자들도 많으며,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국가를 기도하는 자들은 세력을 잃었으며, 북한에는 김정은 왕조가 흑심을 품고 있으며, 기독교 세력은 기독교국가에 대한 염원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지혜롭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왜 우리가 기독교국가가 되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에 능하고 세계정세에 대한 가장 박식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 맥아더장군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북한의 핵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주간조선 [2481호] 2017.11.06.

이준근 박사. ‘북한 核 그 종말의 여로’ <에서 발췌함>

사실 북한은 이미 한국전쟁 직후부터 핵폭탄 제조를 시도하였다. 한국전쟁 자체가 소련의 부추김 때문이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소련은 오리발을 내밀었고, 김일성은 배신감을 느끼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핵폭탄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 드디어 소련은 멸망하고 말았다. 세상은 변해 가는데 김일성

일가는 이미 왕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릴지언정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에는 가소롭게 생각했다. 심지어 어르고 달래며 핵을 포기하라고 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주는 꿀물을 빨아 먹으면서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하였다. 그들은 핵폭탄 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었다. 북한의 핵이 테러집단에게 팔릴 가능성을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게 북한은 멀리 있는 가난한 나라요, 성가신 나라였다.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전개하였고 이전의 대통령들도 대부분 그런 식이었다.

김정일은 핵이 완성되면 미국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버젓이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면 남한의 천만 명 정도는 이민을 떠날 것이며, 이천만명은 숙청될 것이며(기독교인) 남겨진 이천만과 북한의 2500만 합해서 4500만명으로 충분히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핵폭탄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주저할 수 있으랴? 김정일은 죽어가면서 이 정신을 이어받을 김정은에게 정권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장성택은 김정남이 적격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은은 장성택과 김정남을 가차 없이 죽여 버렸다. 그리고 모든 악행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무리 빨라도 2020년에 핵폭탄을 완성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래서 오바마는 자신의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집권시기의 문제였다. 또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가 2018년 후반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2017년대는 북한과 미국의 아무말 대잔치가 벌어졌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핵폭탄 보다는 입폭탄이 먼저 터졌다. 놀랍게도 한국정부는

아주 우스운 태도를 양쪽에 보냈다. 북한도 남한이 아니라 미국으로 핵폭탄을 날린다고 협박했고, 미국은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를 ‘체제 보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다.

(체제 보장은 곧 서서히 무너지는 북한을 의미한다. 통치력의 상실로 이어짐.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미국은 핵폭탄 제거를 이유로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체제보장은 상황에 대한 천진한 분석이다. 미국과 한국이 또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김정은에게 ‘체제를 보장해줄 테니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자. 이때 김정은은 이들 나라들에, 특히 미국과 한국에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그동안 강성대국을 외치면서 백성들을 몰아갔던 통치력은 어떻게 될까? (예전에 ‘꽃제비가 본 강성대국’이란 시가 돌았다. -개뿔, 강성대국은 무슨 말라빠진 강성대국)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1. 미국은 북한을 믿지 않으며, 북한도 미국을 믿지 않는다.
2. 중국은 북한을 믿지 않으며, 북한도 중국을 믿지 않는다. (중국으로는 지금현재의 형태가 계속 유지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3. 2018년 현 문재인 정부는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모두 믿지만 일본만은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정체가 모호하다. 거짓말 같다. 그래서 모두로부터 따돌림 당하기 쉽다.
4. 현재 일본은 미국에 너무 협조적이다. 일본은 어부지리를 톡톡히 얻을 궁리에 속으로 웃으며 겉으로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다는 느낌이다.

5. 주사파는 하루빨리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망하기를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그래서 이들에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된다. 이들은 김정은에게 충성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오직 현 정부를 조종해서 북으로 밀고 들어가고, 정권을 쥔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다.) 북한이 망하면 오직 김일성 일가가 망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사파들은 김일성 이론을 내동댕이치고 정권을 찬탈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이다. 이들이 제일 야비한 자들이다.
6. 북한을 두고 이리들이 침을 흘리고 있다. 과거 고종의 나라를 두고 열강이 그랬던 것처럼. 죽기만을 기다리며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으르렁 거리고 있다. 가장 탐욕스러운 존재는 중국이다. 이들은 만약 미군이나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하기만 하면 자기들도 북한에 진군하여 평양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며칠전, 러시아는 강력한 ICBM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다. 아무래도 북한을 칠 미국을 겨냥한 소리다. 그들은 얼마전 급하게 블라디보스톡에 사드를 두 개나 배치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과 함께 기회만 노릴 뿐이다. 한국 내의 주사파들은 오히려 간첩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반 김정은 군부세력들은 이들이 가장 눈엣가시일 것이기 때문이다.
7. 자,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 의해서 신탁통치 5년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들어서야 한다. 북한에는 미군이 아닌,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야 한다. (한술이는 지금 어딴니?) 미군은 해군만 동해와 서해에 배치되면 된다. (일본은 북해도 서쪽를, 미국과 일본의 해군은 세계 최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친중파와 친미파가 있다. 친중파는 아무래도 중국과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친중은 위험하다. 왜냐면 우리와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화하려고 한다. 반면 미국은 멀리 있다. 미국은 우리와 경제적으로 상생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패권국 유지 목적)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아직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다. 시진핑의 중국몽, 일대일로)

어차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의 힘으로 중국과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과 대결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박쥐전략을 통하지 않는다.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북한교회의 원한과 그동안 꺾박당한 남한 교회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자.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통일 자유 대한민국이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통해 비취질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